

성인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및 인권관련 경험적 요인 탐색

Exploring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and empirical factors on the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in adults

전혜성¹, 이종구^{2*}

Hye Seong Jeon¹, Jong Goo Lee^{2*}

요약

본 연구는 성인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 및 인권관련 경험적 요인의 영향력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심리적 요인으로는 자존감 및 타인공감을, 인권관련 경험으로는 인권활동 및 인권교육 경험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고, 인권의식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조사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경기도 및 충청도에 위치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성인들을 조사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조사기간은 201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총 501명이었다. 그 중에서 여러 항목을 누락하거나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32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469부만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개인의 심리적 요인인 자존감 및 공감능력은 인권의식을 높이는 영향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둘째, 인권관련 경험적 요인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서명 및 자원봉사 또한 성인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반면에 보편적으로 실시되는 일방적 강의형태의 인권교육은 인권의식을 높이는 요인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자존감 및 타인공감, 인권서명 경험 및 자원봉사 경험 등이 많을수록 인권의식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 반면, 단순한 강의형태의 인권교육은 성인의 인권의식을 높이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 성인, 인권의식, 심리적 요인, 인권관련 경험, 자존감, 타인공감, 인권활동, 인권교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self esteem and empathy as psychological factors, and human rights activities and education experience as empirical factors on the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in adults.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in November and December, 2018 to 501 Adults who belong to graduate schools located in Chungcheong-do and Gyeonggi-do. 469 sincerely answered were used an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e-way ANOVA, descriptive statistic, correlation

1 Dept. of Graduate School of Legal Studies and Public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Yongin-si, Gyeonggi-do, Korea [Professor]

e-mail: hsjeon@dankook.ac.kr

2 College of Law, Dankook University, Yongin-si, Gyeonggi-do, Korea [Professor]

e-mail: jonggooi@dankook.ac.kr (Corresponding author)

Received(April 10, 2019), Review Result(1st: April 26, 2019), Accepted(June 03, 2019), Published(June 30, 2019)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first, self esteem and empathy as psychological factors were the significant predictors to explain the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in adults. Second, human rights activity also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to explain the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in adults. Third, but only education experience related to human rights didn't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In conclusion, to improve the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in adults, self esteem, empathy, human rights activities are important factors.

Keyword : adult, consciousness of human right, psychological factor, empirical factor, self-esteem, empathy, human rights activity, education experience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오늘날 한국사회 도처에는 성인의 인권의식 및 인권 감수성의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사회적 문제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사회에 이전부터 만연해온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해 비롯해서, 최근에 심각한 문제로 급부상되고 있는 타인의 신체를 찍은 불법촬영물의 공유,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등 인권침해의 대상과 방법이 더욱 다양하고 치밀해지고 있다. 이는 IT산업의 발달로 당사자 본인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위험성이 높아지고 SNS가 갖는 공유의 기능으로 그 피해의 파급력도 견잡을 수 없는 위협까지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권리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 조」에서는 인권을 “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은 한 인간이 갖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서 이는 스스로가 자명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생래적 자연권이다. 즉,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누리는 천부적·생래적 자연권이다[1]. 그러나 개인의 인권 수호는 결코 개인만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인간은 국가 및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 전 구성원이 인권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준수해야 하며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도 개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2].

이와 같은 인권의 자연권적 본질과 국가 사회적 차원의 보장 속성을 준수하기 위해, 현대 사회에 이룰수록 개인 차원에서의 주체적인 인권의식의 자각과 더불어 전 국민 차원에서의 인권감수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성인의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UN에서도 최근 들어 아동 및 청소년을 넘어서 성인의 인권의식에 대해 관심이 확대되고 성인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 교육이 이전에는 주로 초등교육을 시작으로 중등교육, 고등교육까지에 주로 집중되었으나, 최

근 들어 대학교육 및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애주기별 단계마다 인권교육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이는 성인이 되면 인권의식이 자연스럽게 습득되고 고취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와 달리, 현실적으로 성인이 자행하는 인권침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의식이 모든 공동체, 더 넓게는 사회 전반에 더 확장되고 강화되기 위해서는, 근거 기반적이고 경험적인 연구에 따른 실행력 있는 정책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3].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경험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최근까지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의식 조사 및 관련 선행연구들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전반에 걸쳐 성인의 인권의식의 함양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는 사회적 관심과 동의가 결성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연구나 구체적인 개입 방향성을 제시한 대안들은 발견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성인이라는 대상이 성인초기부터 중년 및 노년에 이르기까지 연령 범주도 넓고 개인적 특성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를 하거나 정책을 제시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면서 본 연구는 소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인권의식을 높이는 영향 요인으로 제시되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인권관련 경험요인들에 주목하고 그 영향력을 조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먼저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 개인의 자존감 및 타인공감 능력이 인권의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은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으나 자존감을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자아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다. 자존감이 형성되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이와 같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타인에 대한 인정과 배려라는 인권의식의 함양으로 발달할 수 있다[4]. 또한 타인 공감능력은 타인의 감정이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협상이나 협의와 같은 인권관련 행동에 참여하는 과정에 있어서 타인이나 집단, 사회 전체의 다양한 관점들을 조화롭게 이해하게 함으로써 더 높은 차원의 인권의식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고 제시되고 있다[5]. 한편, 인권활동 및 교육 또한 개인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6][7]. 물론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인권활동에 참여하는 선행적 경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인권활동 자체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의식 또한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및 증진의 의식을 기르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구현해 갈 수 있는 능력과 품성을 기르도록 교육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인권의식을 높이는데 적용되는 가장 직접적인 접근 방법이다[8].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는 성인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 경험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는 자존감 및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선정하였고, 인권관련 경험요인으로는 인권활동 경험 및 인권 교육 경험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인의 인권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기능적이고 효과적인 선행요인

들을 재조명하고, 이러한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성인들의 인권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사회적 접근 방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도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의 인권의식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성인의 자존감, 공감능력, 인권활동 및 교육경험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조사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경기도 및 충청도에 위치한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성인들을 조사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조사기간은 201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총 501명이었다. 그 중에서 여러 항목을 누락하거나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32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469부만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2 조사 도구

2.2.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조사에서는 성별, 연령, 경제적 상황을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2.2.2 자존감

선행연구에서는 자존감이 인권의식에 유의미한 심리적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인의 가치, 자신감, 만족도, 자신에 대한 존중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비하를 포괄적으로 측정하도록 고안된 Rosenberg의 개인자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인 문항이 5개(1,2,4,6,7), 부정적인 문항이 5개(3,5,8,9,10)로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의 리커트(Likert)척도로 측정되며, '거의 그렇다'(4점)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부정적인 문항에서는 반대로 처리하여 점수의 총점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존중 정도의 자아승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9]는 이 척도의 Cronbach alpha값이 대학생집단에서 .85에서 .88까지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81이다.

2.2.3 타인 공감

선행연구에서는 타인 공감이 인권의식에 유의미한 심리적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학생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2개의 검사도구 즉, Davis(1980)의 IRI(조망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검사와 공감의 정서 요소를 측정하기 한 도구인 Bryant (1982)의 공감 각성검사를 [10]이 번안하고 수정 보완한 공감능력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의 하위요인은 조망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 각성, 공감적 관심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조망 취하기’와 ‘상상하기’는 인지적 공감으로 구분하고, ‘공감 각성’과 ‘공감적 관심’은 정서 공적 공감으로 구분한다. 인지적 공감에서의 ‘조망 취하기’는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사물이나 상을 보려는 능력이나 생각하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상상하기’는 자신이 소설, 영화, 연극 등 가상 속의 세계에서 주인공이 되어 보는 상상을 말한다. 정서적 공감에서 ‘공감 각성’은 공감하는 사람에게 발산되는 정서 각성 상태를, ‘공감적 관심’은 타인에게 갖게 되는 온정, 연민, 자비심 등의 느낌을 경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검사 도구는 조망 취하기 5문항, 상상하기 5문항, 공감 각성 15 문항, 공감적 관심 5문항으로 총 30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2, 8, 11, 12, 13, 14, 19, 21, 23, 24은 역채점 문항이고 각 문항에서 얻어진 수는 하역별로 합산하여 응답 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조사에서 이 척도의 전체 Cronbach's α 계수는 .84이다.

2.2.4 인권활동 경험

응답자들의 인권활동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청원, 서명 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사회 약자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의 2개의 질문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없다’부터 ‘5회 이상’까지 1점~4점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활동 경험 횟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2.5 인권교육 참여 경험

응답자들의 인권교육 참여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의 질문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없다’부터 ‘5회 이상’까지 1점~4점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교육 참여 경험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2.6 인권의식

인권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1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권개념 이해 10문항, 인권적 태도 7문항으로 총 17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1점~5점으로 구성된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89이다.

2.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설문조사자료는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인권체감 수준, 인권활동 및 교육 경험, 향후 선호하는 인권교육 유형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인구변인의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응답자의 인권의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및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에 사용된 각 척도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고,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셋째, 응답자의 자존감, 공감능력, 인권활동 및 교육 경험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 특성

본 조사에서 수집된 설문은 총 501개의 설문이며, 이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잘못기입하거나 기입하지 않은 결측치 또는 인권의식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32개의 설문을 제외한 총 469개의 설문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아래의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469)

Variable	Item	Frequency	%
Sex	male	234	49.9
	female	235	50.1
Age	20's	295	62.9
	30's	103	22.0
	40's	50	10.7
	50's	18	3.8
	over 60's	3	0.6
Education	college graduate	432	92.1
	master graduate	37	7.9
Economic status	very low	14	62.9
	low	87	22
	average	287	10.7
	high	67	3.8
	very high	14	0.6

실제 분석에 활용된 469명의 조사대상자 중 남성은 234명으로 49.9%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여성은 235명으로 50.1%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볼 때, 20대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는 총 295명으로 전체 중 62.9%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는 103명으로 22%, 40대는 50명으로 10.7%, 50대는 18명으로 3.8%, 60대 이상은 3명으로 전체 중 0.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졸업이 432명으로 92.1%, 대학원졸업이 37명으로 7.9%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판단한 본인의 경제적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한 조사대상자들이 287명으로 전체의 61.2%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다소 열악하다고 평가한 조사대상자들이 87명으로 전체의 18.6%를 차지하고 있었다.

3.2 주요 변인의 수준

인권의식의 평균값은 4.21점(5점 만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은 3.11점(4점 만점)에서 중간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고, 타인 공감도 3.52점(5점 만점)으로 중간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인권활동 경험으로 청원 또는 서명운동 참여에 관한 경험을 조사하였다. 청원 또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거나 1~2회 수준이 평균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와 관련된 경험은 평균 2.38로 측정되어 약 3~4회 정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권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1.94로 1회~2회수준이거나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인권의식수준의 특성

[Table 2] Characteristics and Distribution of main variables

Variable	Sample size	Minimum	Maximum	Mean	SD
Human rights	469	2.00	5.00	4.21	0.54
Self esteem	469	1.10	4.00	3.11	0.50
Empathy	469	2.10	4.60	3.52	0.39
Volunteer work	469	1.00	4.00	1.90	1.00
Signature	469	1.00	4.00	2.38	1.13
Education Experience	469	1.00	5.00	1.94	2.45

3.3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인권의식의 차이

본 조사는 성별에 따른 인권의식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실시한 결과 F 값이 0.439가 산출되면서 등분산이 가정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등분산을 가정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10%내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며,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본 조사에서는 연령구분, 경제상태에 따라 인권의식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연령 및 경제상태에 따른 인권의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4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아래의 [표 3]은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우선 본 조사의 종속변수로 활용될 인권의식은 자존감, 공감, 인권서명, 자원봉사와 양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분석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Human rights	Self esteem	Empathy	Signature	Volunteer work	Education experience
Human rights	1					
Self esteem	0.349***	1				
Empathy	0.494***	0.320***	1			
Signature	0.275***	0.038	0.225***	1		
Volunteer work	0.280***	0.089*	0.337***	0.334***	1	
Education experience	-0.016	-0.034	0.065	0.081*	0.079*	1

* p < .1, ***p < .01

3.5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경험적 요인

본 조사에서는 인권의식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자존감, 공감, 인권서명경험, 자원봉사 경험, 인권교육경험과 인권의식간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아래의 [표 4]와 같이 자존감, 공감, 인권서명, 자원봉사가 양의 유의한 영향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Table 4]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f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Variable	B	SE	β	T-value	p	VIF
Constant	1.435***	0.207		6.918	0.000	
Self esteem	0.229***	0.045	0.212	5.132	0.000	1.168
Empathy	0.488***	0.060	0.354	8.120	0.000	1.303
Signature	0.085***	0.022	0.157	3.815	0.000	1.154
Volunteer work	0.044**	0.020	0.091	2.139	0.033	1.229
Education experience	-0.012	0.009	-0.053	-1.369	0.172	1.017
Adjusted R ²	0.316					
Durbin-Watson	1.993					
F	31.817***					

**p < .01

반면, 인권교육 경험은 인권의식의 영향요인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해당 분석의 설

명력은 0.317로 31.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Durbin Watson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1.997로 2와 가까워 각 변수들이 1사차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F값의 경우 44.436으로 모형의 적합성 또한 검증되었다. 추가적으로 다중회귀분석에 있어서 존재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 또한 VIF를 통해 검정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인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총 501개의 설문을 모집하였고 이 중 통계분석이 유효한 469개의 설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의 인권의식, 자존감 및 타인 공감능력, 인권관련 활동 경험 등의 수준은 다음과 같다. 인권의식의 평균값은 4.21점(5점 만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정의될 수 있는데, 본 조사의 응답자들은 이러한 인권에 대해 상당히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인권의식에 주요 심리적 특성으로 제시되는 개인의 자존감 및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수준을 조사한 결과, 자존감의 평균값은 3.11점(4점 만점)으로 제시되어 보통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의 평균값은 3.52(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점수는 보통 수준보다는 높다. 그러나 응답자들이 인권활동을 위한 청원 또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경험은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 또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아예 없거나 1~2회 수준이 평균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권활동 관련 자원봉사 경험은 대체로 3~4회 정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 참여경험은 1회~2회수준이거나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저조한 교육 참여에 대한 결과에 근거하여 성인대상의 인권교육의 확대가 적극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성인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해당하는 성별, 연령, 경제적 상황은 인권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나지 않았다. 참고로, 본 연구의 응답자는 남녀 성별이 거의 비슷한 수로 구성되었고, 연령별 분포는 63%가 20대이었고 그 다음으로 22%가 30대로 대체로 생애주기상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85%에 해당되었다. 다양한 심리적 및 경험적 예측요인들을 조사한 결과, 심리적 요인으로 자존감과 대인 공감능력이, 인권활동 경험요인으로는 인권서명 및 자원봉사 횟수가 많은 경우가 성인의 인권의식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단순한 강의형태의 인권교육은 성인의 인권의식을 높이는데 유의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한가지 특이한 점은 응답자들이 위와 같이 인권교육에 참여한 경우가 매우 드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대졸이상의 고학력자인 만큼 사회적 바람직성에 부응하는 응답을 선

택하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유추하게 한다.

한편 본 연구는 비확률적 편의표집 문제 및 일반화의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편의적으로 경기도 및 충청도 2곳에 위치한 교육기관(대학원)에 재학 중인 성인으로 한정하였고 응답자들의 교육수준이 모두 대졸이상의 학력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우리나라의 모든 성인에게 일반화시켜 적용하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향후 추속연구에서는 응답자의 거주지역을 도시 및 지방 등으로 확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표본을 대상으로 표집하고 다양한 학력수준을 고려하여 참여자들을 선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결과에 기반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의 인권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선행적으로 개인의 자존감 및 타인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자존감이 형성되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이와 같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타인에 대한 인정과 배려라는 인권의식의 함양으로 발달할 수 있다. 타인공감능력은 타인의 감정이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협상이나 협의와 같은 인권관련 행동에 참여하는 과정에 있어서 타인이나 집단, 사회 전체의 다양한 관점들을 조화롭게 이해하게 함으로써 더 높은 차원의 인권의식을 형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12].

둘째, 본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성인들의 인권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사회적 방향성을 모색하고 향후 효과적인 인권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방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성인의 인권교육을 위한 내용에는 인권 강의 외에도 인권서명 및 자원봉사 등의 인권 활동적 요소가 포함되는 다양한 활동 요소가 포함된 포괄적인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로, 성인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외국 대학의 선례를 제시하자면, 하버드 로스쿨의 경우 Harvard Law Student Advocates for Human Rights 라는 학내 인권기구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 기구는 인권관련 강좌 개설, 인권관련 학위과정 개설부터 학생들의 인권침해 관련 상담, 구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 내 인권센터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나 인권에 대한 자체 프로그램 개설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하버드 대학의 경우에는 보다 더 다양한 프로젝트 또는 인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이 센터에서는 강좌 개설의 다양성을 위한 대학 본부에 대한 노력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대형참사, 노예제도, 섹슈얼리티, 물과 위생, 과거사 정리, 교육, 라틴 아메리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13]. 또 다른 접근으로 성인을 중심으로 인권인식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공익광고 등으로 환기시키고, 공동체 관람 등을 통해 영화관람 후 내용에 대해 상호 토론하게 하는 전략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14].

References

- [1] Hong, S. B. "Chinese law". Parkyoungsa. Seoul, (2013).
- [2] Moon, M. H. "Developing a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for preservice teachers".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2004).
- [3] Kim, Y. J. "The Role of Human Rights Organization for Human Rights Education at Universit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15).
- [4] Cheon, J. Y. "A Structural Analysis on the Youth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Respect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Education, Discriminating Experiences, and Self Esteem". Journal of the Future Youth Association, (2015). Vol. 12, No.4, pp. 1-23.
- [5] Kim, J. Y. "A study on typology and influence factors of youth's human rights consciousness".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2012), Vol.3, No.1, pp.5-40.
- [6] Moon, M. H. "Developing a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for preservice teachers".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2004)
- [7] Hong, S. S. "Effect of Youth Autonomy Activities on Sense of Human Rights". Kookm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2010)
- [8] You, B. Y. "A Study on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in elementary mor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6), Vol.17, No.1. pp.2-18
- [9] Kim, M. J. and Lee, K. H. "A Study of Self-Esteem Types based on Self-Esteem Instability, Self-Esteem Level, and Defensivenes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09), Vol.10, No.3. pp.1-12
- [10] Park, S. H. "Compassion and pro-social behavior". Munumsa. Seoul, (1994).
- [11] Lee, K. H. "Influence of childcare teachers'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professionalism on child care respect for infants and toddlers". Graduate School of Chongshin University. Seoul, (2018).
- [12] Kim, J. Y. "A study on typology and influence factors of youth's human rights consciousness".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2012).
- [13] Kim, Y. J. "The Role of Human Rights Organization for Human Rights Education at Universit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15).
- [14] Lee, J. G. and Jeon, B. S. "A Study on the Effects of Human Rights Film Watching on Changes to the Perception of Human Rights - Application of the O1-S-O2-R model".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2012), Vol. 27, No.3. pp. 149-188.

